

IV. 해무기와 도발적 야심 167

간의 바람이 지금 바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예언자는 해무기에 들어서 돌진해 갔다.

부르조아 정치학은 전례가 없을 정도의 자신감에 가득 차 미국의 지배를 역사적 필연이고 신의 축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한 팽창을 위한 팽창은 항상 미국의 이익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출판물이 나왔고, 더우기 그 주장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정당화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

\*미국이 행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전쟁과 파괴·전복활동의 기록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 대 알제리 전쟁(1785~1795); 대 프랑스 해전(1798~1800); 대 트리폴리 전쟁(1801~1805); 대 모로코 전쟁(1801~1803); 사빈강에서의 대 스페인 전쟁(1803~1806); 대 영국 전쟁, 캐나다와 플로리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 선전포고(1812~1815); 스페인령 서부 플로리다의 탈취(1812~1814); 누크 히버섬[말케사스제도] 상륙, 군사작전행동(1813); 대 알제리 전쟁(1816~1818); 옐로우스톤 원정, 쿠바·푸에르토리코·산토도밍고·유카탄[멕시코] 침략(1819~1829, 1819~1825); 미 해군에 의한 하와이 제도 간섭(1826); 그리스의 미코노스섬·앤드로스섬에 대한 군사원정(1827); 포클랜드 군도 군사원정(1831~1832); 쿠알라바토르[수마트라] 군사원정(1832); 부에노스아이레스 상륙(1833); 사모아 군사원정(1835); 수마트라 군사원정(1838); 피지군도 군사원정(1840); 길버트 군도의 드래몬드 제도 군사원정(1841); 리베리아 군사원정(1843); 대 멕시코 전쟁—결과적으로 멕시코는 이 전쟁으로 가장 좋은 영토의 일부를 잃었다(1847~148); 사마나만[아이티] 점령(1847); 부에노스아이레스 상륙(1852~1853); 니카라과 상륙 및 제재적(制裁的) 군사행동(1853~1854); 상해·광둥 그밖의 중국항로 군사원정(1854~1856); 피지제도 군사원정(1855); 몬테비데오[우루과이] 상륙(1855~1858); 하나마[뉴그레나다] 상륙(1856); 니카라과 상륙 및 점령(1857); 유이하제도 군사원정(1858); 파라과이 해군원정(1858~1859); 상해 상륙(1857); 판 데프카 해협 산관섬 침략(1859); 멕시코 침략(1859); 키센보[포르투칼령 서아프리카] 상륙(1860); 파나마[콜롬비아] 상륙(1860); 시모노세키에서 일본인에 대한 군사작전행동(1863~1864); 파나마[콜롬비아] 상륙(1865); 우장·그밖의 중국 도시 상륙과 군사작전행동(1866); 멕시코 침략(1866); 대만에 파괴적 원정(1867); 조선 원정 상륙과 군사작전행동(1867~1872); 몬테비데오[우루과이] 상륙(1868); 일련의 일본항구 상륙과 군사작전행동(1868); 콜롬비아 상륙(1868); 멕시코 상륙(1870~1873); 파나마[콜롬비아] 상륙(1870); 호놀룰루[하와이 군도] 상륙(1874); 멕시코 상륙(1876); 이집트 상륙(1882);

파나마 침략(1885); 아이티 침략(1888); 서울(조선) 상륙(1888); 부에노스아

정치학의 독트린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미국의 간섭과 침략을 항상 논해 왔다. 예를 들면 저명한 역사가 퍼킨즈는 「미국 외교정책의 발전 *The Evolution of American Foreign Policy*<sup>22)</sup>에서 미국은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

이레스(아르헨티나) 상륙(1890); 아이티 침략(1891); 칠레 무력개입(1891); 호놀룰루 상륙, 하와이제도의 일시 병합(1893);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브라질 군의 패배(1894); 니카라과 상륙(1894); 조선과 중국 상륙(1894~1896); 콜롬비아 상륙(1895); 니카라과 재상륙(1896); 하와이제도 최종 점령(1898); 니카라과 상륙(1898); 미서전쟁, 쿠바·필리핀·팜·푸에르토리코 점령(1898~1899); 니카라과 상륙(1899); 피지제도 군사원정(1899); 사모아에서 파멸적 군사작전행동과 추추이라섬의 최종점령(1899); 대 필리핀 전쟁(1899~1902); 중국의 의화단 진압을 위한 군사원정(1900~1901); 파나마 및 콜롬비아 상륙(1900~1902); 사마르섬·레이테섬[필리핀]에서 이슬람교도에 대한 군사작전행동(1902~1912); 파나마 운하의 영구 점령(1903); 산토도밍고 상륙 및 군사작전행동(1903~1904); 파나마 상륙(1904); 서울 상륙(1904); 쿠바 점령(1906~1909); 니카라과 군사개입(1907); 온두라스 상륙(1907); 파나마 군사개입(1908); 나카라과 상륙(1910); 온두라스 군사개입(1910); 온두라스에 새로운 군사개입(1911); 중국상륙과 북경에 해군원정(1911~1912); 파나마 군사개입(1912); 쿠바 상륙(1912); 터키 상륙(1912); 나카라과에 연속적 군사개입(1912~1925); 멕시코 상륙(1913); 아이티에 부대 상륙(1914); 멕시코에 제재적 원정(1915~1916); 산토도밍고 군사점령(1916~1925); 쿠바의 군사점령(1917~1932); 제1차 세계대전 참전(1917~1918); 칠리키(파나마)점령(1918~1920); 대 소련 간섭전쟁(1918~1920); 온두라스 상륙(1919); 코스타리카 군사개입(1919); 과테말라 군사개입(1920); 파나마·코스타리카 군사개입(1921); 중국 상륙, 군사·점령작전행동(1922~1941); 온두라스 상륙 및 폭격(1924~1925); 파나마 상륙(1925); 니카라과 군사점령(1926~1933); 온두라스 부대상륙(1931); 쿠바 연안 정찰(1933); 양자강 연안의 파넬리 군사점령(1937); 라도, 에데베리(데



평양)점령(1938);그린랜드 항구점령(1941);아이슬랜드 점령(1941);조선전쟁(1950~1953);이란의 모사디그 정권을 CIA지원으로 타도(1953); CIA용병에 의한 과테말라의 군사개입(1954); 중동 위기 선동(1958); 케모이섬·마쓰섬 주변에서 무력시위행동(1958); U-2스파이기 소련영공 정찰(1960); 콩고에서의 'UN작전' 선동(1960); 빅스만 침략(1961); 베를린 위기 선동(1961); 톤킹만 무력도발(1964); 베트남 전쟁(1964~1972);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1965); CIA음모와 엔크루마 대통령 타도(1966); 라오스·캄보디아 군사개입(1970);

#### IV. 핵무기와 도발적 야심 109

몇 개의 기본적 독트린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항상 본질적으로 '합리적 간섭주의'라고 요약되는 이런저런 말들의 조합이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에 의한 서반구의 전일적 지배, 또는 그런 권리에 대한 모든 침범자와의 교전을 요구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독트린은 유럽과 미국 간의 분쟁은 모두 미국의 중재재판소에 제소해야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헤이즈 독트린은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모든 항로를 모두 미국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을 요구했다(제2차 대전중 리프만은 대서양을 미국의 내해로 보아야 된다고 해서 이 독트린을 수정했다). '문호개방' 독트린은 결국 중국에서의 영토확장이었다. '힘의 과시'와 '선린(善隣)' 독트린은 특정의 역사적 시기에 중남미 제국에 적용된 먼로 독트린의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트루만 독트린은 '원조'와 '공산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이름을 빌린 다른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 이외에 아무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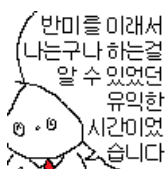
칠레의 군사파시스트 쿠데타와 아옌데 대통령 암살의 조직화(1973); 포르투갈에서의 파괴활동(1974~1975); 케냐의 진보적 지도자 무왕기 카리우키 암살(1975);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정권의 전복—CIA가 조직화(1975); 콩고인민공화국의 마리엔 엔구아비 대통령 암살(1977); 대 이란 작전행동(1979~1981); 카스트로 암살 재기도(1960~1981); 리비아 혁명 지도자 가다피 암살계획(1981); 파나마 정부 최고 지도자 트리후스 암살(1981);

인디아 간디에 대한 음모 (1981); 카운다 잠비아 대통령 암살계획 (1981); 폴란드 파괴활동 (1980~1984); 특수부대 훈련과 아프가니스탄에의 파견 (1980~1984); 엘살바도르 내정에의 군사개입 (1981~1983); 니카라과 군사도발 (1981~1983); 시드라만에서 리비아 도발 (1982); 그레나다 무력개입 (1983).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도 또한 과거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긴 목록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사하라, 희망봉, 차드, 나미비아의 무력 충돌 선동, 남미; 페루-칠레의 대립 선동, 영국-아르헨티나 대립 도발, 중동; 이란-이라크 전쟁의 도발과 제3국을 통한 두 나라에 무기 공급, 아시아; 파키스탄에 공격무기 제공. 그것에 의해 인도-아시아 대륙에 불안정한 전쟁 위기의 진원지를 만들어 냈다. 중동; 시오니스트의 침략 지지, 아랍제국의 일관된 내정간섭, 레바논 점령 기도, 키프러스 문제에 관련된 동지중해 긴장증대. 이러한 지역적 도발, 간섭, 협박의 기획은 핵미사일 기지의 세계 네트워크 창출과 수십 개 국가에 대한 점령군의 파견으로 완성되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즉 세계 전쟁의 준비인 것이다.

《성조기와 폭력》(A.야코블레프, 밝은책, 1989)  
에 나오는 각주에 미제의 침략, 내정간섭, 전쟁이  
3쪽에 걸쳐서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의 목록은 1983년까지 나와 있다.  
2021년이 된 지금, 이 목록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개인적으로는 이 쪽수의 최소 2배는 될 거라 본다.



- dc official App